

다산포럼

갑질이 한국경제를 죽인다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대한항공 ‘땀공 회항’ 사건으로 다시 갑(甲)질 문제가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남양 유입사태 등으로 한동안 중소기업-대기업 간 갑을문제가 들끓어 올랐는데, 이제 중업원과 경영자 간 문제로 또 터져 나왔다.

부사장이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면 먼저, 지침을 위반했다고 시비가 된 문제와 관련해 정작 질책하는 경영자는 지침을 완전히 무시했다. 즉, 회사라면 있을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규정을 전혀 의식도 하지 않은 채, 말 하지만 처벌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업무에 관련된 일에 국한되어야 할 질책이 인격적 모독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영자의 갑질은 종업원의 반발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둘째,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은 부사장의 권위에 눌려 지시에 따른 기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기장의 행동이 그랬다면, 사고가 났을 때 세월호 선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본사 임원의 의사를 먼저 알아보고자 통화하고 지시를 기다렸던 일과 그렇게 다른 일인지 모르겠다.

기장의 도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자의 갑질은 종업원을 눈치보게 하고, 모든 일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게 만든다.

IMF 위기가 있고 나서 몇 년 뒤부터 주변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업무 이외에 자주 만짓을 하는 직원들이 많아 격정이라고 이야기할 하곤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이직을 염두에 둔 자격(스펙) 준비를 한다거나, 퇴근 후에 두 번째 일자리(투잡)를 찾는 것 같거나 하는 일들이다.

실제로 노조교육을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도움이 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곤 했는데,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와서는 즉시 보고하지 않고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그냥 들고 있겠다는 대답이 훌쩍 늘어났던 기억이 있다. 적당한 기회란 회사 이직도 포함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일체감의 하락과 불

안, 반발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경영자의 갑질은 이런 경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곧 회사의 발전 기회를 스스로 죽이는 셈이다.

갑질이 경제의 발전 기회를 죽이기는 중소기업-대기업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매년 초가 되면 납품 단가와 판매 수수료 계약을 맺는 업체들이 많은데, 납품 단가의 부담 인하를 둘러싼 잡음도 많아 지는 때다.

작년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 제조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 당했다는 응답률과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가 있었다는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일환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과 관련해서 10여 개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거나 오히려 우려된다.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세평이다.

실제로 새 제도들에 근거한 제재 실적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기업을 가맹사업법 위반

으로 제재했을 뿐이다. 또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에 따라 고발권을 갖게 된 중소기업청은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8개 원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 데 그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이나 납품단가의 인하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해당 중소기업은 신고를 하면 신고금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줄 것이라고 약속되어 버리는 현상과 마찬가지이다. 기술을 감추고 버티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이유이다.

정부는 작년 9월 17개 시도별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기업 전담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민간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삼성, 대전·세종시는 SK 식으로 대기업 그룹들이 연구가 있는 지역을 나눠 맡고, 지역별로 전담해서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게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갑을문제가 현격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종업원의 아이디어도 죽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도 죽는다. 어떤 경제개혁방안, 회생방안도 공명

社說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정부가 나서야

오는 7월3일부터 14일까지 광주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는 남북 단일팀 구성 및 참가가 성공 개최의 열쇠가 된다. 지난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 대구세계U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단일팀이 아닌 북한선수단 단독으로 참가했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흥행에 큰 성공을 거뒀다.

특히 이번 광주U대회는 종합경기 사상 최초로 단일팀이 구성되면 대회 성공은 물론 남북 화해·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축구와 탁구 등 단일종목에선 팀이 구성되기도 했으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종합대회에선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일팀 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한 긴장상태가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나 조건을 단 북측의 대화 요구로 인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미국의 강경책에 북한

이 맞서면서 냉기류마저 감돌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북한 성화봉송 문제 등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광주U대회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큰 걸림돌이다. 북한 성화봉송만 하더라도 U대회 조직위가 북한~백두산~판문점~광주를 거치는 이벤트를 추진 중이지만 정부의 비협조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대북 정책과 기조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지만 광주U대회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부가 적극 나선다면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과거 남북한 긴장 완화와 교류 증진에 공헌한 팀이 구성되기도 했으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종합대회에선 전례가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단일팀 구성과 성화봉송 등에 관해 북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광주U대회의 성공 개최는 세계 속의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더 높이는 일이다.

오라가락 치안행정 시민 불신 자초한다

경찰이 추진하는 치안정책이 일관성과 원칙 없이 수장이 바뀔 때마다 흐지부지되거나 오락가락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과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여성들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밤 늦은 시간 여학생이나 성인여성이 112에 전화하면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는 ‘안심 car 귀가서비스’를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청장이 떠나면서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홍보가 필수적인데도 홍보를 하지 않고 이홍실장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2년 전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청장이 직접 쟁거 성범죄피자까지 만들면서 부산을 떨었지만 청장이 바뀌자 범죄 발생 현황집계는커녕 그런 정책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지경이 됐다.

교통정책도 수장이 갈리면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 광주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2013년에는 9604건에 달했다가 지난해 1187건으로 급감했다. 읍·면·동도 2013년 343건으로 전년도 2배 이상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230건으로 줄었다.

치안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수장에 따라 정책이 변질되는 행태는 전시행적인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는 ‘안심 car 귀가서비스’를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청장이 떠나면서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홍보가 필수적인데도 홍보를 하지 않고 이홍실장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치안현장에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치안서비스는 대국민 약속이다.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범죄와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경각심과 신뢰를 줄 수 있다. 약속 위반이 누적되면 공권력에 대한 불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NGO 칼럼

시민으로서 청소년, 중력의 에너지를 뿜어낸다



정민기
문화행동 S#ARP 대표

장면 1.
지난해 5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금남극원원을 가득 메운 청소년과 시민 400여 명의 양손에는 노란색 종이 프랑과 양초가 들려있었다. 무대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유발언과 공연이 하나둘씩 진행되었으며 공원을 가득 메운 청소년과 시민들은 함께 영상을 보고 노래를 부르며 세월호의 이름을 함께 기억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광주청소년 촛불문화제’를 이어나갔다. 촛불문화제를 준비한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청소년활동가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어른들의 목메에 청소년 스스로가 주인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행동선언이 담겨있었다. 이날 진행된 청소년촛불문화제는 그 후로 12월까지 매주 금남로 알라딘중고 서점 앞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되었다.

장면 2.
지난해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총장로 옛 학생회관에서 2014년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달려온 청소년들과 광주시민들을 응원하는 ‘중력을 끌어 모으는 광주청소년 상상마당’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상상마당 청소년 기획단 친구들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201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선정된 7대 뉴스 전시 그리고 청소년동아리 친구들이 선보이는 보컬과 댄스 등의 거리공연들로 구성되어 2014년 한해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청소년들과 광주시민들을 응원하며 불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문화행동 S#ARP’과 ‘소셜플레이 이 런지’ 청소년들은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에너지를 보다 멋진 한 해로 만들어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대인시장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상

사람들은 지금을 무중력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살다 보면 가끔씩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무기력하고, 외롭고, 우울한 이 상황은 마치 ‘무중력 상태’와도 같다. 끌어당겨 주는 사람도 없고, 끌리는 일도 없는 답답한 무중력한 이 세상.

그러나 이 무중력한 세상을 반기를 든 청소년들이 여기저기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장면1과 장면 2에서 보여준 것처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끼와 열정, 때로는 무모함이 광주의 곳곳에서 무중력세상이 아닌 중력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어린 존재가 아님을, 미성숙한 아이가 아님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청소년으로 존중받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향한 다양한 활동들을 실천한다.

이 청소년들은 작년 말에 이어 여전히 총장로 옛 학생회관 앞에서 거리공연을 진행하며 2015년을 보다 멋진 한 해로 만들어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대인시장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상

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20~30대의 청년상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청년상인으로 성장하며 작은 분석점과 다과 케이터링을 운영하는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세월호의 이름을 기억하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좋은 진화도시 광주를 만들어갈 것을 실천하는 청소년촛불모임을 다시 시작하였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스스로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를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은 파트너로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지지와 격려를 보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끌리는 일이 넘쳐나는 중력의 광주. 2015년 광주를 꿈틀거리게 하는 이 중력의 에너지는 바로 우리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된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이 자랑스럽다.

기고

불혹을 바라보며



정재환
스포츠 코디네이터

곤 40세다. 40세를 웅만하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는 불혹(不惑)이라고 한다. 공자의 위정면에는 공자가 40세에 불혹, 즉 ‘세상에 미혹되지 않았다.’라고 적혀있다.

자신의 결혼식이 2건 있었다. 1건은 아주 친한 야구코치의 결혼식, 다른 1건은 사회학자 친구인 골프코치의 결혼식이었다. 2건의 일자와 장소는 다르지만, 13 : 30에 식이라는 시간은 같았다. 불혹, 나와 친한 야구코치의 결혼식 13 : 30에는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다. 토요일 오전근무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호호한 마음과 참석자들의 예식장 주차대란을 염려하는 세심한 마음이 느껴졌다. 나와 사회적 친구의 결혼식 13 : 30에는 알박한 상술이 느껴졌다. 일요일 13 : 30. 웅만한 사람들은 12 : 00 ~ 13 : 00 사이에 점심을

먹는데, 다들 점심은 알아서 먹고 봉투만 챙겨서 오라는 느낌이었다. 같은 13 : 30이지만, 나에게겐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물론 개인적인 친밀도에 따라서 세심한 배려와 알박한 상술이라는 극과극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 인정한다. 야구코치의 경우에는 친하기 때문에, 결혼당사자들의 일정과 결혼식장 예약장정에 맞추다보니 13 : 30으로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골프코치는 사회적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history)이 있었는지 모른다. 단지 13 : 30에 모른다. 아주 편협하고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이미 이타심과 이기심으로 결론 내렸다.

세상사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문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극과 극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NLL포기발언)의 처리과정과 비교되며, 한쪽은 문건유출을 다른 한쪽은 문건내용을 중요시 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인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자방(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낙하산 인사 등을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다. 보고 있는 결과물은 똑 같은데, 과정을 놓고는 해석이 너무나도 다르다. 물론 해법도 자신들만의 선택에 맞춰 주장하고 있다.

야구코치와 골프코치에게 왜, 13 : 30에 결혼식을 잡았느냐고 난 묻지 못한다. 20대라면 물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는 훈수를 두었을 것이다. 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지 않았겠냐고. 38세,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궁금한 것도 조연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무 의미하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나이를 먹어가며 체득했기 때문이다. 단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한다.

세상 일은 너무나도 쉽게 밖으로 터져 나온다. 언론사의 특종에 대한 애착, 종편 방송과 정치평론가들의 시청률 집착, 정치인들의 생색내고 빠지기식 행동,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수습하는 ‘착’만하는 국가기관의 무능력한 모습. 모두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생각하는 것 같다. 냄비근성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소나기는 피하면 된다. 모두 맞는 말이다. 어차피 우리들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 몰입된다. 그리고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날이야기가 된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한 마을에 야구(비석치기)코치와 골프(자치기)코치가 있었는데 서로 같은 날, 같은 시간, 다른 장

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어떤 쪽을 참석해야할지 모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알아서들 하시오. 참석여부에 따라서 두고 봅시다.”라고 말을 하고 나섰는데. 마을 사람들은, 야구코치와 골프코치가 없는 곳에서 꼭 날을 잡아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한다고 싸잡아서 흥을 보았지요. 그러나 야구코치와 골프코치가 있는 곳에서는 축하한다며 꼭 참석하겠다고며 이야기를 했지요. 결혼식이 다가오면 울수록 마을 사람들은 답답해 했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마을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 양쪽에 봉투만 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는다. 2. 자신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한쪽만 참석하고, 다른 쪽은 봉투만 한다. 3. 확 확같이 스칸디나비아반도 등으로 이민 간다. 4. 단결권을 행사하여, 모든 마을 주민들이 봉투도 참석도 하지 않는다. 5. 끝까지 모르쇠와 연막작전으로 있다가, 결혼식 직전에 대세에 따른다. 수확능력 시험에 맞춰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된다. 자 어찌해야할까. 선택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진다. 다른 것은 몰라도, 대다수의 헛똑똑이와 정치인은 5번이 라는 것은 확실치 않았다.

곧 불혹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절세미인으로 손꼽히는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가 즐겨 먹은 과일? 답은 석류다.

석류를 한번이라도 맛본 독자라면 ‘석류’라는 단어만 들어도 조건반사적으로 입안에 침이 고일 터. 붉은 석류알에 ‘에스트로겐’ 성분이 함유돼 미용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음료 이름조차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다.

석류 원산지는 페르시아(이란) 시라쿠스인데 페르시아어로 ‘시르’는 사자이고, ‘쿠흐’는 산이라는 의미이다. 인류에 의해 기원전 4000~3000년 전부터 올리브, 포도, 무화과와 함께 재배가 시작된 작물 가운데 하나다.

실�크로드 문명기행에 나선 정수일 교수는 ‘시르 쿠흐’를 찾아 집푸른 석류나무 숲을 보며 “...석류는 저 멀리 이란과의 유대를 맺어 준 고대운 매체다. 그러한 석류를 매만지는 순간 문득 시공을 초월한 두 지역간의 교류상 일단이 머리에 떠올랐다”고 묘사했다.

기원전 3세기 한 무제 사신으로 대하(아프카니스탄)에 갔던 장군이 페르시아산 석류를 중국에 보급했고, 우리나라에는 8세기 췌에 중국으로부터 들어

왔다고 한다. 이렇듯 석류라는 과일 하나에는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교류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통일신라 말기를 산 고을 최지원 선생은 석류에 대한 시를 남겼다.

“뿌리는 진흙사랑 성품은 바다사랑 / 열매는 진주 같고 껍데기는 게 같아라 / 새콤달콤한 고깃 언제나 맛볼까 / 잊지도 바람높은 시월아라네.”

올곡 이이 선생도 어릴 적에 “석류 껍질 안에 붉은 구슬이 부서졌구나”라는 시를 지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껍질속에 터지며 붉은 속살을 드러내는 석류가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할 듯 싶다.

고흥군이 자체 육종한 석류 ‘꽃향 1호’가 국립 종자원에 정식 품종으로 등록됐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최초의 석류 신품종이다. 페르시아가 고향인 아열대 석류가 마침내 고흥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다.

앞으로 신품종 고흥석류가 널리 보급·재배돼 도내 농민들도 수익을 올리리라. 소비자들이 손쉽게 ‘새콤달콤한’ 맛을 볼 수 있겠으면 좋겠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